

보도자료

2025년 2월 3일 대전세종충남 2025-2-1호

이 자료는 2월 4일(화)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2월 3일(월) 17:00 이후부터 취급 가능

제 목 : 최근 대전지역 고용 상황의 주요 특징 및 평가

◆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는 2월 3일 조사연구보고서 「최근 대전지역 고용 상황의 주요 특징 및 평가」를 발표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작성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경제조사팀 정혜윤 과장, 임연빈 조사역

Tel : (042)601-1218, 1228 Fax : 601-1214 E-mail: daejeon@bok.or.kr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 > 지역본부 > 대전세종충남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붙임)

최근 대전지역 고용 상황의 주요 특징 및 평가

2025.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작성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작성자> 경제조사팀 과장 정혜윤, 조사역 임연빈

<조언자> 경제조사팀 팀장 김현철



< 요약 >

I. 검토배경 1

II. 최근 대전지역 고용 동향 2

III. 대전지역 고용 상황의 주요 특징 6

IV. 평가 및 시사점 14

< 참고문헌 >

〈 요약 〉

① 대전지역은 2023년 하반기 이후 전국 및 5대 광역시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고용 여건 악화 등으로 취업자수는 줄어들고 있어 경제성장세 만큼 고용 상황이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2024년 1~3분기 중 양호한 경제성장을 보이면서 동 업종의 취업자수는 소폭이나마 늘어나고 있으나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 연령별로는 2023년 3/4분기부터 핵심연령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업자수 축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종사자 지위별로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증가로 취업자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② 대전지역 전체 취업자수가 줄어드는 등 고용 상황이 경제성장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경영 애로에 따른 기업의 고용 여력 위축,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및 서비스업 부진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① (기업의 경영 애로에 따른 고용 여력 위축) 대전지역 기업의 경영 애로 등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 종료에 따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의 취업자수가 큰 폭 감소하였다.

- 제조업의 경우 3高(고금리, 고환율, 고임금) 여건 하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경기 부진 등으로 건설업의 취업자수 회복세도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코로나19 기간 적극적인 방역정책 등으로 서비스업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2.7만명)하였다가 코로나19 종료 이후 관련 업종의 고용조정이 진행되면서 관련 취업자수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② (청·장년층 취업자수 감소가 고령층 취업자수 증가를 상쇄) 대전지역 인구구조에 있어 청년층(15세~29세)과 3040 핵심연령층은 감소하고 고령층은 증가하는 가운데 핵심연령층의 취업자수 감소폭이 고령층 증가폭을 상회하고 있다.

- 특히 청년층(15세~29세)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취업준비, 자발적 쉬었음 등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가 큰 폭 증가하면서 취업자수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 또한 저출산 등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청소년층(0세~20세 미만) 대상 교육 서비스업 등 관련 고용시장의 위축과 구인 축소 등으로 중장년 핵심연령층의 취업대상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는 것도 고용 상황 개선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고용 여건 악화) 대전지역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고소득 직종(관리자·전문가)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 대전지역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내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관리자·전문가 직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같은 세부 업종들이 취업자수 감소를 견인하였다.

* 대전지역은 전산업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비중이 지자체 중 세번째로 높으며, 그 중 관리자·전문가 직종이 42.0%를 차지하고 있다.

** 대전지역은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많은 연구원이 입지하고 있고 1인당 연구개발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③ 대전지역 고용 상황이 경제성장세 회복과 함께 개선되기 위해서는 ①연령별 차별화된 일자리 지원정책 및 고령층의 직업전환 및 재취업 프로그램 다양화, ②지역 연구개발 관련 고용 기회 창출, ③서비스 관련 신규 산업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① (연령별로 차별화된 일자리 지원정책)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성별·연령별 차별화된 특성에 기반하여 세분화된 고용정책을 위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와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영향받는 직업군의 직종전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고령층의 경우 직업전환 및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한층 다양화하고 지자체 일자리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퇴직을 앞둔 장년층의 안정적인 고령층 진입을 위한 단계적 준비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② (연구관련 관리자·전문가의 고용 기회 창출) 연구개발관련 공공부문 채용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민간기업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및 첨단산업 기술 기업 육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연구개발관련 관리자와 전문가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③ (서비스업 부문 신규 산업 발굴) 그동안 대전지역 취업자수 증가에 기여해왔던 기존 서비스업 인력의 일자리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노력과 함께 서비스업 중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규 산업을 발굴하여 서비스업의 유휴인력을 흡수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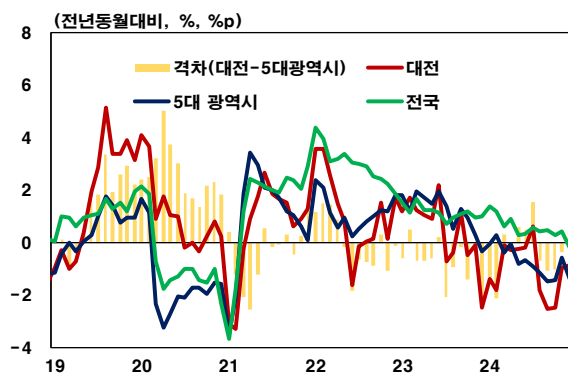
④ 대전지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세에도 고용 상황 개선이 더딘 것은 경기 순환적 요인과 함께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기인한다. 향후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의 업황이 회복될 경우 고용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구구조 변화,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고용 상황은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지자체의 지속적 노력에 더해 정부의 정책지원도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I. 검토배경

- 1.1. 대전지역의 고용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기흐름¹⁾에 힘입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대전 취업자수는 2022년 상반기까지 높은 증가를 보이며 5대 광역시를 상회하는 회복세를 기록하였고, 이후 점차 등락을 보이며 평균적으로 5대 광역시와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 1.2. 그러나 2023년 하반기부터 대전지역 고용시장은 취업자수가 감소하면서 경기 회복 움직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취업자수 증가율은 2024년 7월 중 일시적 반등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²⁾하는 등 대체로 전국 및 5대 광역시 대비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24년 1~3분기 중에는 대전지역의 경제성장률이 5% 수준(총부가가치 기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대전지역 고용 상황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 1.3. 최근 대전지역의 고용 상황은 경기순환적 요인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요인도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역의 청년층 인구유출 등과 같이 전국적 추세에 기인한 구조적 변화일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대전지역 고용 상황이 경기 개선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배경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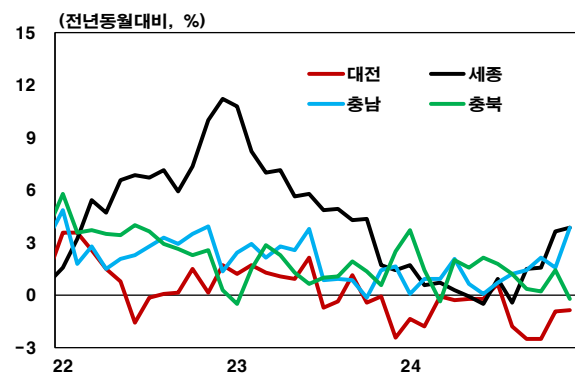
대전지역 취업자수는 여타 지역 대비 부진한 모습이며 2023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그림 1.1] 취업자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그림 1.2] 충청권 내 지역별 취업자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1) 대전지역은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2020년 1.8%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1년 2.6%, 2022년 2.2%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통계청, 총부가가치 기준)

2) 대전지역 취업자수는 2019년부터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4/4분기 80.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향 추세로 전환되어 2024년 4/4분기 현재 78.5만명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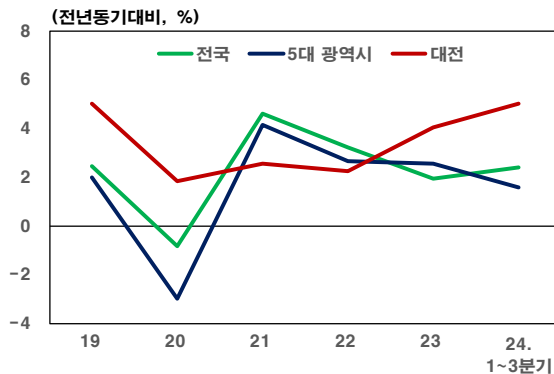
II. 최근 대전지역 고용 동향

지역별 고용 동향 비교

- 2.1. 대전지역 고용여건은 코로나19 기간에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대전지역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시기 견조한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 데다 고용률도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전국 및 5대 광역시 대비 나은 흐름³⁾을 보였다. 다만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에 비해 취업자수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 2.2. 코로나19 이후 2023년 하반기 부터 대전지역은 전국 및 5대 광역시 대비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에도 취업자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의 경우 2024년 중 완만한 내수 회복과 수출 증가 등으로 2.1% 수준의 경제 성장⁴⁾이 예상되며, 취업자수도 경제 성장과 함께 비슷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경우 경기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취업자수는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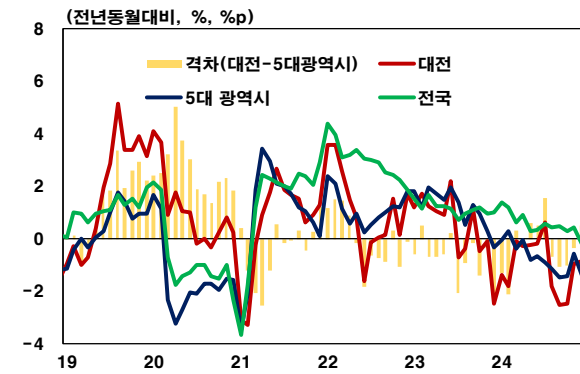
대전지역 경제 성장은 양호하나 고용여건은 부진 심화

[그림 2.1] 대전지역 경제성장률¹⁾ 추이



주: 1) 총부가가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저자 시산

[그림 2.2] 대전지역 취업자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3)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2023년 12월 발표한 「대전지역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백승연 과장·최재혁 조사역) 중 제2장 “대전지역 취업자수 동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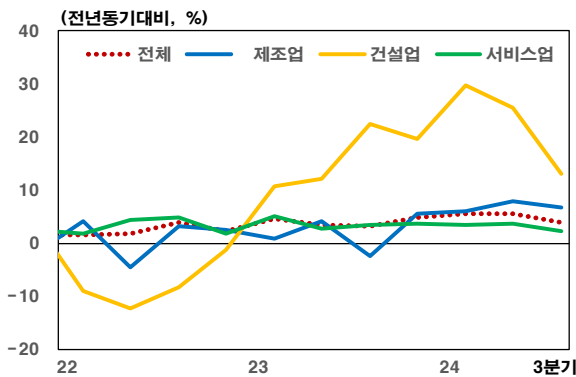
4)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2024년 12월)를 참조하기 바란다.

대전지역 고용 동향 : 경제성장과 고용 간 엇갈린 움직임

2.3. 대전지역 취업자수는 2023년~2024년중 양호한 경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자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전지역은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2024년 1~3분기 견조한 경제성장⁵⁾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수 증가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서비스업의 완만한 성장세에도 오히려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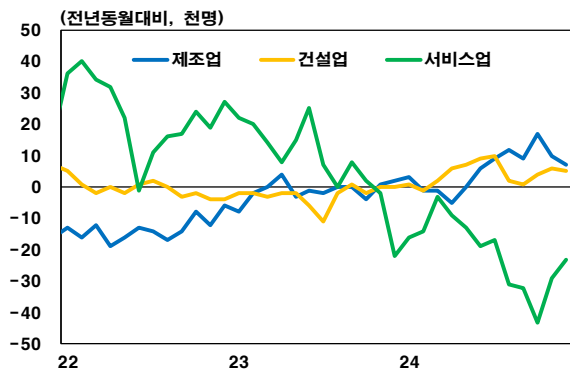
대전지역 경제성장률과 고용지표 간 낮아진 상관성

[그림 2.3] 대전지역 산업별 경제성장률¹⁾ 추이



주: 1) 총부가가치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저자 시산

[그림 2.4] 대전지역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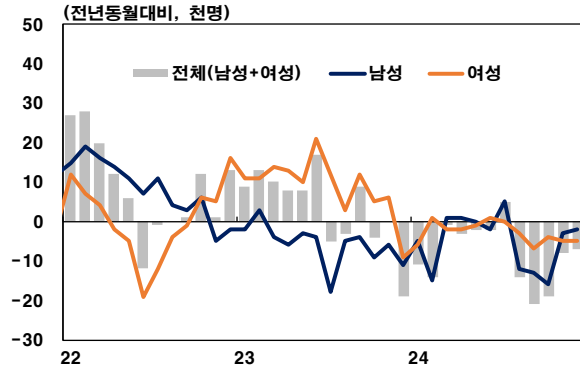
2.4. 대전지역 취업자수는 2023년 이후 남성과 여성 간 취업자수 증감이 상이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연령별⁶⁾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2022년 이후 남성 취업자수는 둔화세를 보이다 2023년 들어 감소 전환하였으나, 여성 취업자수는 남성의 빈자리를 메꾸며 증가 전환하였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하였다. 한편, 연령별 취업자수의 경우 2023년 이후 청년층의 취업 부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인 반면, 고령층 취업자는 그나마 플러스를 유지하였으며 핵심연령층은 최근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5) 지역소득 통계(통계청)는 GRDP를 연간으로 2023년까지만 공표함에 따라 고빈도 기초자료 흐름을 반영하여 지역 경기상황을 분기별로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지역경기상황지수(RECI)로 경제성장률을 대체하여 추산하였다. 산업별로 제조업, 서비스업은 생산지수 등 고빈도 통계의 정보를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고빈도 통계가 부재한 건설업은 건설수주와 실제 건설공사의 시차를 고려하여 건설수주 통계로 건설기성액을 추정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기상황지수의 개발 및 활용” (BOK 이슈노트, 2023)을 참조하기 바란다.

6) 본고에서는 취업자를 연령에 따라 15~29세를 청년층, 30~59세를 핵심연령층, 60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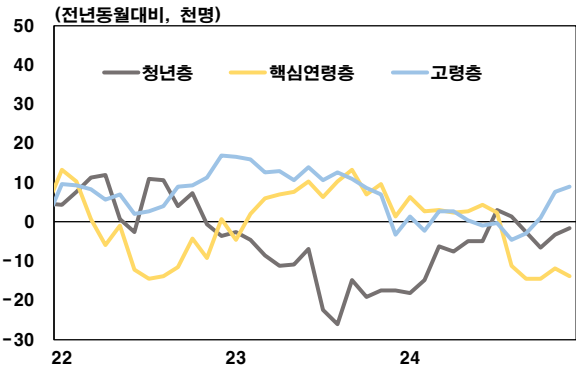
대전지역 취업자수 증감은 성별, 연령별로 상이한 모습

[그림 2.5] 대전지역 성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그림 2.6] 대전지역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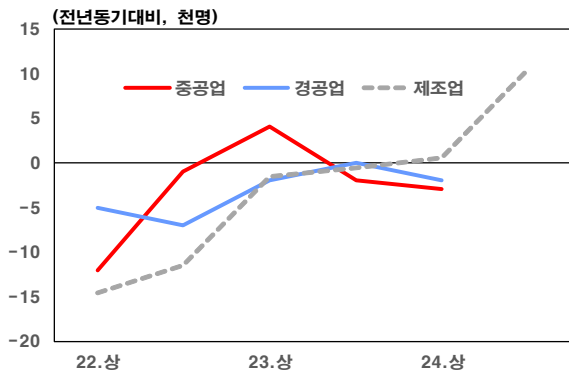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5. 대전지역 취업자수를 산업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제조업 취업자수는 최근 들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과는 달리 서비스업 부문의 부진이 부각되었다. 제조업의 경우 2023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중공업, 경공업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2024년 하반기 들어 개선된 모습이다.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취업자수 변동성이 큰 편인데, 2023년 말부터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⁷⁾을 중심으로 대폭 감소하는 흐름을 보인다.

대전지역 산업별 취업자수는 최근 들어 제조업은 양호한 모습이나 서비스업은 큰 폭 감소하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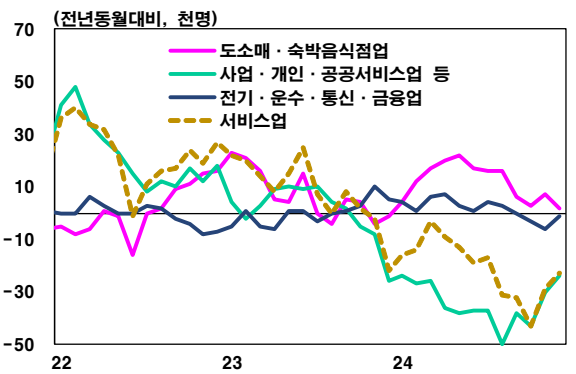
[그림 2.7] 대전지역 제조업 산업별 취업자수 증감¹⁾



주: 1) 중공업, 경공업은 「지역별고용조사」, 제조업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

자료: 통계청

[그림 2.8] 대전지역 서비스업 부문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7) 2024년 상반기 기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의 세부산업별 취업자수 비중(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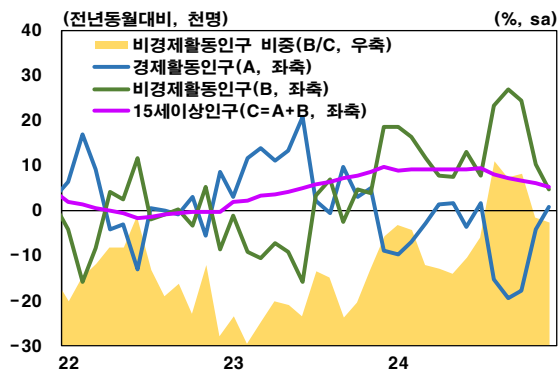
	보건업 및 사회복지	교육	전문, 과학 및 기술	공공·국방·사회보장 행정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그 외
대전 (전국)	22.3 (26.2)	16.9 (16.4)	15.8 (12.4)	13.4 (11.4)	10.2 (12.2)	11.0 (9.9)	10.5 (11.5)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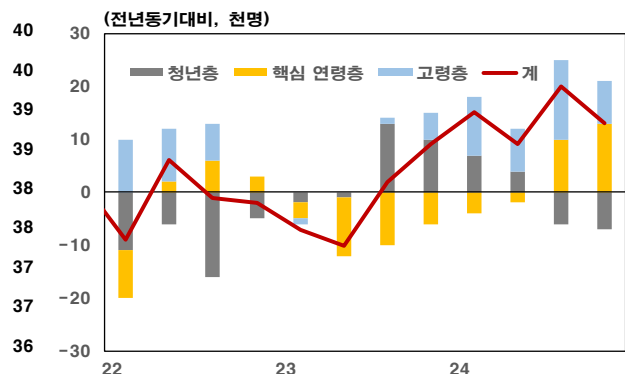
2.6. 한편 연령대별로 대전지역 고용시장을 살펴보면 2022년 이후 15세 이상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3분기부터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 12월 이후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세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폭 하락하면서 취업자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곧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것을 의미하며 특히 핵심연령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15세 이상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며 경제활동인구 감소

[그림 2.9] 대전지역 15세 이상 인구수 증감 추이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중¹⁾



[그림 2.10] 대전지역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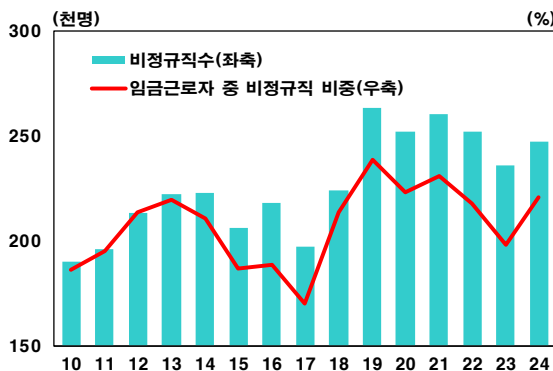


주: 1) 계절조정계열은 BOK-X-13ARIMA-SEATS를 이용하여 추출
자료: 통계청, 저자 시산

2.7. 또한, 대전지역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임금근로자의 불안정성은 가중되고 있다. 대전지역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9년 8월 가장 높은 비중(전체의 42.0%, 전년동월대비 17.4%)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2024년 들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전체의 39.0%, 전년동기대비 +4.7%)로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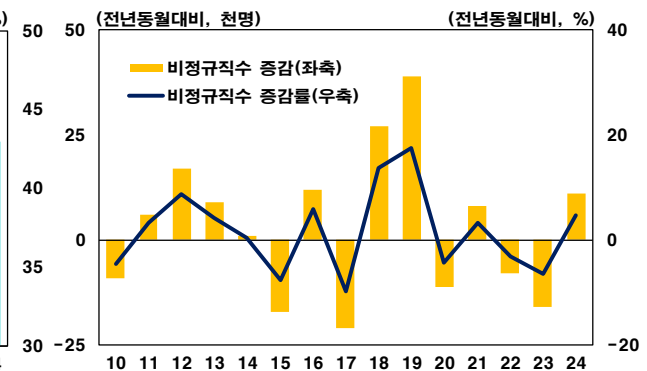
2024년 대전지역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중이 증가한 상황

[그림 2.11] 대전지역 비정규직 추이(2010~2024)¹⁾



주: 1) 매년 8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12] 대전지역 비정규직 증감 추이(2010~2024)¹⁾



주: 1) 매년 8월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Ⅲ. 대전지역 고용 상황의 주요 특징

기업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고용 여력 위축

3.1. 최근 들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3高(고금리, 고환율, 고임금) 등 경영 여건 악화에 더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세종충남지역 기업들의 경우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2023년중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가운데 저조한 영업이익률과 높은 차입금 의존도 등이 지속되고 있어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종료 이후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 대출금리가 높은 수준인 데다 원/달러 환율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이 겹치며 지역기업의 경영 여건은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대전지역을 포함한 지역 기업들의 운영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표 3.1]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지표¹⁾

(단위 : %, 원/달러)

	기업 대출금리 ²⁾			원/달러 환율	최저임금 인상률
	대기업	중소기업			
2020년	2.73	2.51	2.89	1,088.0	2.87
2021년	3.14	2.86	3.37	1,185.5	1.50
2022년	5.56	5.32	5.76	1,267.3	5.05
2023년	5.29	5.28	5.31	1,289.4	5.00
2024년 ³⁾	4.76	4.74	4.77	1,470.0	2.50

주: 1) 기간말 기준, 2) 신규취급액 기준
3) 기업대출금리는 11월 기준
자료: 한국은행

[표 3.2] 대전세종충남지역 기업경영분석 결과¹⁾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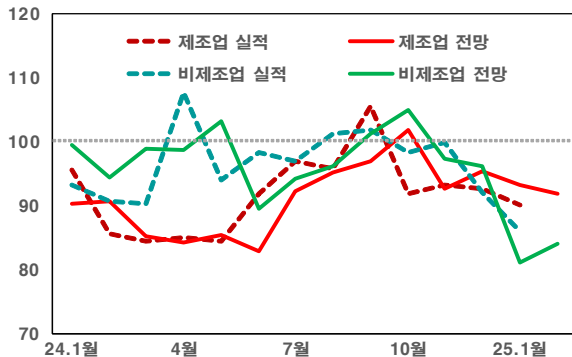
	제조업			비제조업		
	매출액 증가율	영업 이익률	차입금 의존도	매출액 증가율	영업 이익률	차입금 의존도
2020년	-5.1	4.3	27.6	1.3	3.0	49.6
2021년	21.5	5.9	27.3	15.8	3.8	50.1
2022년	22.2	5.2	27.7	18.8	4.3	49.1
2023년	-5.5	3.4	27.2	-0.0	4.4	48.1

주: 1) 외감 기준
자료: 한국은행

3.2. 대전지역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부정적이고 기업심리도 호전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당분간 대전지역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체들의 고용 여건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전지역 기업들은 2024년 3/4분기 중 수출 증가에 힘입어 기업실적 및 전망이 100을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상황 등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 전망이 상당폭 하락하는 가운데 2024년 12월 이후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향후 기업 실적 전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기업 경영 여건 악화로 인한 향후 지역 기업 실적 전망은 부정적 인식이 확산

[그림 3.1] 대전지역 기업실적 및 전망 기업심리지수(CBSI)¹⁾ [표 3.3] 대전세종충남지역 기업들의 경영애로사항¹⁾



(단위 : 응답비중, %)

	내수 불확실한 자금 부진	환율 인력난·원자재 가격상승	경제상황 부족	임금인상 가속		
제조업	21.3	19.4	10.2	10.1	9.9	6.8
비제조업	21.7	14.5	7.9	1.2	24.8	3.9

주: 1) 100보다 클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 심리가 과거(03~24년) 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

3.3.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중 적극적인 방역정책 등에 힘입어 빠르게 늘어났던 대전지역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코로나19 종료 이후 동 효과가 소멸하면서 취업자수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2020년~2022년)중 대전지역 취업자수는 2019년말 대비 3.3% 늘어난 80.2만명으로 5대 광역시(0.3%)를 크게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적극적인 방역 정책 등에 힘입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수가 제조업과는 달리 대폭 증가(기간중 +2.7만명)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이후 코로나19 관련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고용이 축소·조정된 데다 제조업의 고용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대전지역 전체 취업자수가 누적기준으로는 감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최근 대전지역 취업시장은 코로나19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축소조정 과정이 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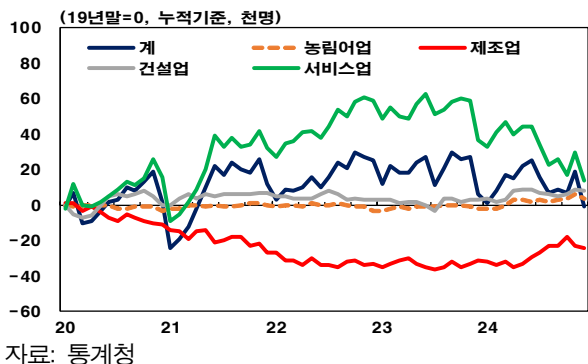
[표 3.4] 코로나19 전후 지역별 취업시장 규모¹⁾

(단위 : 천명, %)

	전국	수도권	5대 광역시	대전	세종	충남
2019년말(A)	27,154	13,733	4,997	777	172	1,169
2022년말(B)	27,808	14,286	5,013	802	201	1,185
(B/A)	(2.4)	(4.0)	(0.3)	(3.3)	(16.6)	(1.4)
2024년말(C)	28,041	14,544	4,929	776	211	1,251
(C/B)	(0.8)	(1.8)	(-1.7)	(-3.3)	(5.4)	(5.5)

주: 1) ()내는 해당기간 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그림 3.2] 코로나19 이후 산업별 대전지역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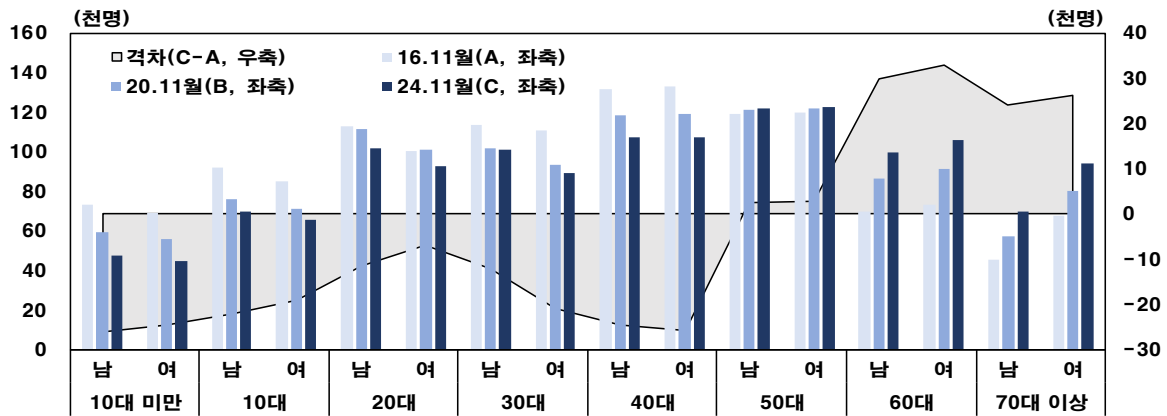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령별 고용 상황 차별화

3.4. 대전지역은 청소년층(0세~20세 미만)과 3040 핵심연령층이 감소한 반면, 고령층(60세 이상)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연령별 인구구조가 변화하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⁸⁾을 앞두고 있다. 최근 대전지역의 40대 이하 인구는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40대⁹⁾와 10대 미만의 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50대 이상 연령대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대전지역은 40대 이하 연령대는 감소하고 50대 이상 인구는 증가하는 등 초고령사회로 전환중

[그림 3.3] 대전지역 연령별·성별 인구 증감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3.5. 청년층(15~29세)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취업준비 등을 위한 비경제 활동인구가 큰 폭 증가하면서 취업자수 감소에 기여하였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인구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2022년 1분기중 14.6만명에서 2024년 4분기중 12.5만명으로 2.1만명(연평균 -0.7만명) 감소한 가운데 실업률도 약 7% 수준¹⁰⁾을 보였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전년동기대비 남성 +60.1%, 여성 +52.2%)한 가운데 청년층의 자발적 쉬었음 인구도 여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와 같은 대전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미스매치 등은 구조적으로 취업자수 증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¹⁾

8) 대전지역은 2020년중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수의 14.4%를 차지하면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였으며 2024년 11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8.1% 수준으로 향후 초고령사회(20% 수준) 진입을 앞두고 있다.(UN 분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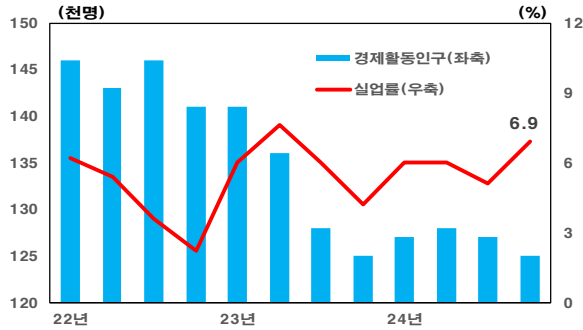
9) 최근 40대 인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폭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제활동 핵심 연령층(30세~59세)의 주요 고용지표에 영향을 주고 있다(노동연구원, 2024).

10) 2024년 4분기 현재 연령대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청년층이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였다.(청년층 6.9%, 핵심 연령층 2.1%, 고령층 4.0%)

11) 자세한 분석내용은 「경제전망」(2024년 11월) 내 (Box 2) 「청년층 " 쉬었음 "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한국은행)

최근 청년층 실업률이 높은 가운데 취업준비 등을 위한 비경제활동인구도 큰 폭 증가

[그림 3.4] 대전지역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추이 [표 3.5] 대전지역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¹⁾



	성별	
	남	여
가사	-	3,033 (82.5)
취업준비	6,507 (60.1)	5,550 (52.2)
진학준비 및 통학 ²⁾	61,796 (-3.3)	53,392 (2.3)
쉬었음	7,036 (-3.1)	6,203 (20.4)
기타 ³⁾	2,167 (-1.2)	3,375 (7.7)

자료: 통계청

주: 1) 2024년 상반기 기준,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2) 정규교육기관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또는 기관 통학, 진학준비 등을 합산하여 산출
 3) 연로, 육아, 심신장애, 군입대 대기, 기타를 합산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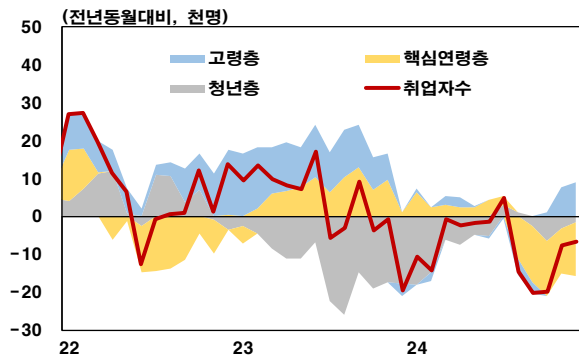
3.6. 다음으로 핵심연령층(30세~59세)과 고령층(60세 이상)의 경우 핵심연령층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고령층은 증가하였으나 감소폭이 증가폭을 상쇄하지 못하면서 취업자수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핵심연령층은 2024년 하반기부터 40대 남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고령층은 여성을 중심으로 대전 취업자수 증가를 이끌고 있다. 핵심연령층은 2024년 상반기중(2023년말 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0천명), 교육 서비스업(-7.1천명)에서 주로 취업자수가 감소하였으나 운수 및 창고업(+4.0천명), 건설업(+3.5천명), 제조업(+1.7천명) 등에서 큰 폭 증가하면서 취업자수가 증가를 견인하였다.

반면 고령층은 동 기간중 상대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많았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3천명)이 줄어들었으나 농업, 임업 및 어업(+2.1천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2천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0.7천명)에서는 취업자수가 늘어나면서 고령층 고용 증가에 기여하였다.

최근 대전지역의 취업자수는 핵심연령층과 고령층간 취업자수 증감 방향과 규모가 상이

[그림 3.5] 연령별 대전지역 취업자수 증감

[표 3.6] 성-연령별 대전지역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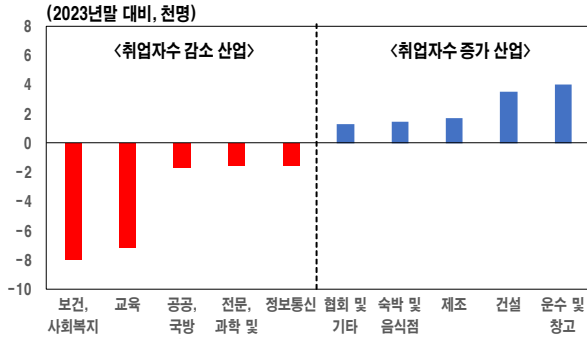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청년층		핵심연령층		고령층	
	남	여	남	여	남	여
22.4분기(A)	62	76	309	209	87	63
23.4분기(B)	54	65	307	216	86	68
24.4분기(C)	56	60	296	214	90	70
격차(C-A)	-6	-16	-13	+5	+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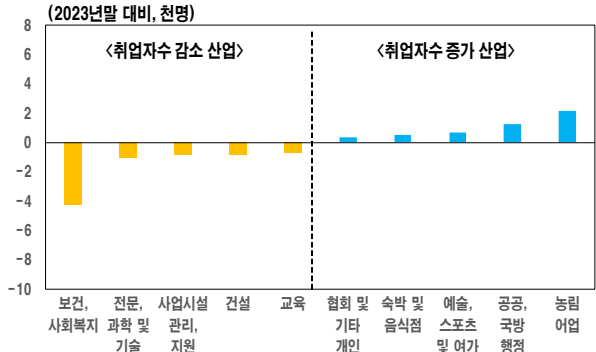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3.6] 2024년 상반기중 핵심연령층 취업자수 증감¹⁾



주: 1) 취업자수 증감 상하위 5개 산업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그림 3.7] 2024년 상반기중 고령층 취업자수 증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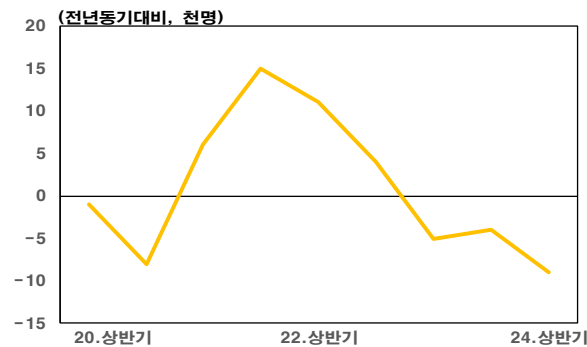


주: 1) 취업자수 증감 상하위 5개 산업 기준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3.7. 한편 출생률 하락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청소년층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대전지역 교육 서비스업의 고용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중 감염 예방을 위한 원격 화상수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교육 서비스업 관련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났으나 코로나19 종료 이후 현장 교육 회복으로 비대면교육 관련 서비스업 종사가가 줄어들었다. 이에 더해 학령인구 감소까지 겹치며 현장 교육 인력 수요도 크게 회복되지 못하면서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출생률 하락이라는 인구구조적 변화에 따라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개선이 쉽게 되기는 어려울 것¹²⁾으로 보인다.

최근 청소년층 인구수 감소에 따라 교육 관련 업종의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

[그림 3.8] 대전지역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수 추이



자료: 통계청

[표 3.7] 대전지역 청소년층 인구수 현황 및 전망

(단위 : 명, %)

	2020년	2024년	2040년 ¹⁾
대전 전체	1,463,882	1,439,157	1,369,261
0~19세 (비중)	260,965 (17.8)	227,126 (15.8)	152,797 (11.2)
<증감률>	-	<-13.0>	<-32.7>

주: 1) 「장래인구추계」(24.5월) 중위추계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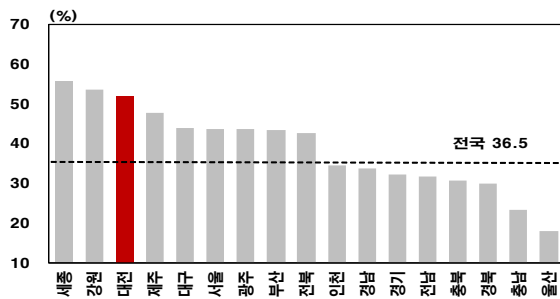
12) 한국고용정보원(2024)은 전망기간(2022년~2032년) 중 전체 취업자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중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70.7% → 72.2%)하면서도 교육 서비스업(6.8% → 6.5%)은 저출산의 영향으로 취업자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고용 여건 악화

3.8. 대전지역 산업구조는 서비스업 비중¹³⁾이 높는데 그 중에서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지역내총부가가치와 취업자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약 52.0%(2023년 지역소득 기준)를 차지하여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다. 또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취업자수 비중은 대전지역 전체 취업자수 중 가장 높은 약 46.8%를 차지하고 있어 그 뒤를 잇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21.5%)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전지역은 전산업 중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비중이 전국 3위로 높은 비중을 차지

[그림 3.9] 지역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비중¹⁾



주: 1) 2023년 지역내총부가가치(명목) 기준
자료: 통계청

[표 3.8] 대전지역 산업별 취업자수 비중¹⁾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전기·운수·통신·금융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대전	46.8	21.5	11.4	10.4	8.5	1.4
전국	39.6	19.4	12.9	15.6	7.2	5.2

(단위 : %)

주: 1) 2024년 기준
자료: 통계청

3.9. 대전지역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종사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로 간주되는 관리자·전문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는 관리자·전문가의 비중이 4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교육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관리자·전문가 비중이 각각 74.2%, 71.7%, 52.3%로 나타났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고용의 질이 높은 관리자·전문가 직종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

[표 3.9] 대전지역 산업분류별 직업 비중¹⁾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전기·운수·통신·금융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관리자·전문가 (27%)	42.0	5.8	22.6	22.5	11.3	0.0
서비스·판매 (24%)	17.0	68.3	8.7	2.3	1.0	0.0
사무 (20%)	19.5	9.4	23.8	20.8	16.1	6.2
기능·기계조작·조립 (17%)	8.0	4.2	31.5	48.2	59.1	0.0
단순노무 (12%)	13.3	12.3	13.4	6.2	12.4	1.6
농림어업 (1%)	0.2	0.0	0.0	0.0	0.2	92.3
합계(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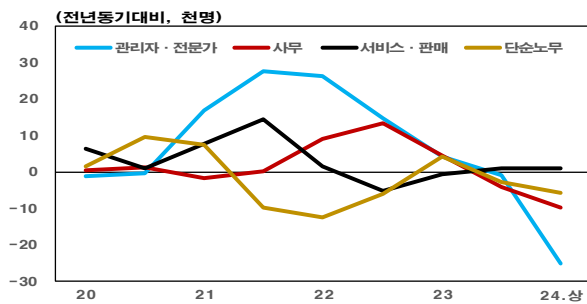
주: 1) ()내는 대전지역 전체 취업자중 해당 직업이 차지하는 취업자수 비중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2024년 상반기 기준)

13) 대전지역의 서비스업은 전체 산업에서 약 76.0%(2023년 지역소득기준)로 전국 지자체 중 세 번째로 높다.

3.10. 하지만 최근 들어 대전지역 고소득 서비스업 고용을 견인하였던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의 관리자·전문가 취업자수가 상당폭 감소하였다. 관리자·전문가 직종은 2024년 들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큰 폭 감소하였으며 교육 서비스업¹⁴⁾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그 다음으로 큰 폭 감소(전기말대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기간중 과도하게 늘어난 취업자수가 동 효과가 종료되면서 고용 축소·조정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중 관리자·전문가 직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심으로 큰 폭 감소

[그림 3.10] 대전지역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중 직업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표 3.10] 대전지역 관리자·전문가 중 업종별 취업자수 증감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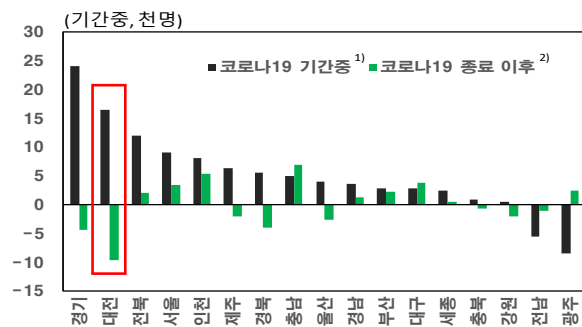
	2020~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보건업 및 사회복지	16,513	957	-11,829
교육	11,143	-4,144	-8,445
전문, 과학 및 기술	8,664	3,993	-3,967
공공,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890	-926	-98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221	376	429

주: 1) 전기말대비 증감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3.11. 특히, 보건업 취업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기점으로 급증·급감하여 대전지역 전체 취업자수 증감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기간중 적극적인 방역행정 등에 힘입어 여타지역 대비 보건업 관련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코로나19 종료 이후에는 큰 폭 감소하게 되면서 전체 취업자수 증감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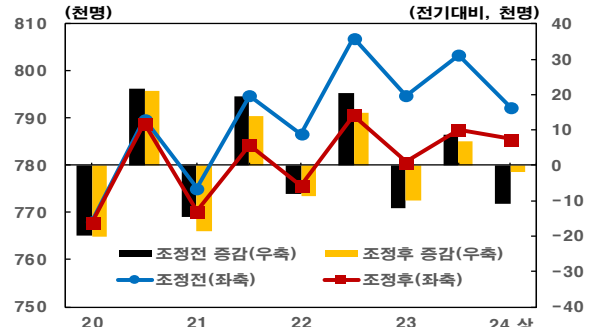
코로나19 기간중 보건업 취업자수 급증에 따른 변동성으로 인한 대전지역 취업자수 감소

[그림 3.11] 코로나19 전후¹⁾ 대전지역 보건업 취업자수 증감



주: 1) 20.상반기~22.4하반기, 2) 23.상반기~24.상반기
자료: 통계청

[그림 3.12] 대전지역 보건업 제외시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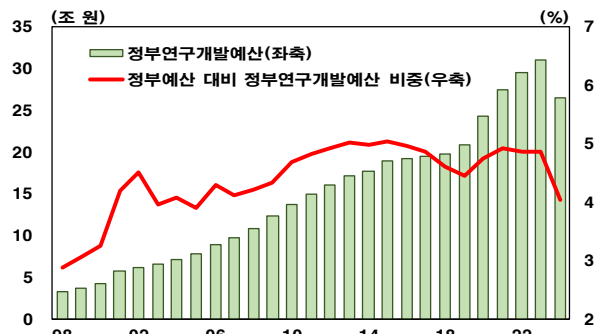
주: 1) 취업자수 조정(보건업 취업자수 제외) 전후를 비교
자료: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14) 교육서비스업의 감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 연구의 III. 대전지역 고용 부진의 주요 특징 중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령별 상이한 고용환경”을 참조하기 바란다.

3.12. 한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정부 등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관련 연구개발예산 증감 여부에 따라 일부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대전지역은 주로 공공연구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감축(전년대비 -14.6%)은 지역 내 전문가 중심의 공공부문 연구개발 관련 일자리가 위축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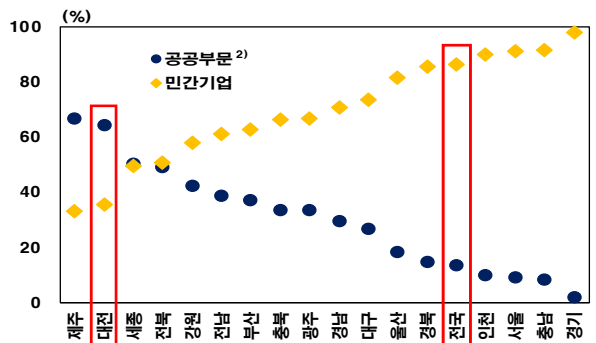
공공부문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높은 대전지역 연구개발 관련 일자리는 정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

[그림 3.13] 정부 연구개발예산 추이



자료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4

[그림 3.14] 연구개발비 자원별 비중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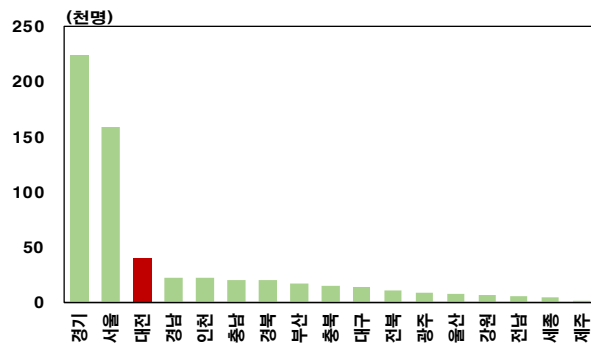
주: 1) 2023년 기준
2) 공공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3.13. 향후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관련 취업자수가 더 이상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지역에는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많은 연구원이 입지하고 지역별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도 가장 높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 등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관련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 유치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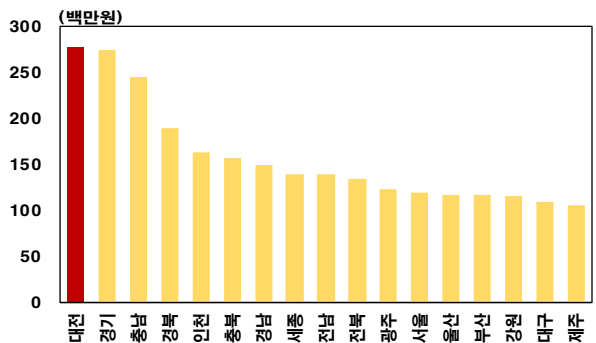
대전은 비수도권 지역 중 연구원이 가장 많이 입지한 지역이며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전국 최고 수준

[그림 3.15] 지역별 연구원 수¹⁾



주: 1) 2023년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그림 3.16] 지역별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¹⁾



주: 1) 지역별 연구개발비 ÷ 연구원 수, 2023년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IV. 평가 및 시사점

평가

- 4.1. 대전지역은 전국 및 5대 광역시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 상황은 기대한 만큼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1~3분기 중 대전지역 경제 성장이 제조업에 주로 힘입은 데다 서비스업의 경기 부진이 크게 완화되지 못 하면서 대전지역 취업자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대전지역 고용 상황이 기대한 만큼 호전되지 못하는 것은 고용 비중이 큰 서비스업 부진이라는 경기순환적인 요인과 함께 인구 변화와 산업 및 고용 구조 측면에서 고용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 4.2. 대전지역 고용 상황이 경제성장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경영 애로에 따른 기업의 고용 여력 위축,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 및 서비스업 부진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전지역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수 증가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 보건서비스업 등의 비정규직 취업자수가 큰 폭 감소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적극적으로 고용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건설업도 부동산경기 부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대전지역은 청년층(15세~29세)과 3040 핵심연령층은 인구가 감소 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종료,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업과 교육 서비스업의 핵심연령층 취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한편 정부지원 축소 등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수도 관리자·전문가 직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줄었다.
- 4.3. 향후 대전지역 고용 상황은 경기 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과 인프라 등 양호한 정주여건에 따른 청년층의 순유입(전입-전출), 지자체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이 지속되면서 점차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지역은 교육여건과 주거환경이 우수¹⁵⁾하여 청년층의 인구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는 바, 청년층이 핵심연령층에 진입한 이후에도 대전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심연령층 및 고령층 대상 지자체의 고용 증대 노력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R&D 예산 증대는 대전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온 전문 관리자 및 연구 직종의 고용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15) 대전지역의 전입사유별 순이동자수 증감(2022년대비 2023년) 추세를 살펴보면, 주택(+0.5천명)과 교육(+0.8천명)을 사유로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 외의 나머지 사유에서는 전년대비 마이너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시사점

4.4. 대전지역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연령별로 차별화된 일자리 지원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 일자리 지원정책과 아울러 청년층 등 연령별 특징에 맞춰 세분화된 고용지원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먼저 다양하고 새로운 업무 경험을 중시하는 청년층 취업자가 지역내 핵심연령층으로 잔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브릿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와 지역 인재유출을 방지에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 인재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정책(예 : 교육발전특구¹⁶⁾ 등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저출산 등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관련 업종의 고용시장 위축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교육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정책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고용 감소 흐름을 경기순환에 따른 단기적 측면보다는 중장기적 시계¹⁷⁾에서 타 산업과 직종으로 전환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내 청년층과 핵심연령층의 브릿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내 정착을 유도

[표 4.1] 미취업 청년의 성별 '괜찮은 일자리' 판단 기준¹⁾

[표 4.2] 지역별 청년층의 선호 지역¹⁾

판단 기준	전체	응답 비율차 (여성-남성)			전체	수도권 거주자		비수도권 거주자	
		남성	여성	비율차		수도권	비수도권		
워라밸(Work-Life Balance) 가능성이 큰 일자리	59.2	58.4	60.0	1.6%p	61.2	83.2	32.6		
직원 복리후생/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일자리	54.2	48.3	59.6	11.3%p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자리	50.1	45.8	54.0	8.2%p					
정년보장 등 고용 안정성이 높은 일자리	38.4	33.9	42.5	8.6%p	18.9	5.7	36.1		
기업·본인의 성장 가능성이 큰 일자리	36.2	36.0	36.4	0.4%p					
회사 규모 및 인지도가 높은 일자리	29.7	32.4	27.2	-5.2%p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한 일자리	15.7	16.9	14.6	-2.3%p	19.9	11.2	31.3		
기타	0.3	0.2	0.4	0.2%p					

주 : 1) 전국 20세-34세 남녀 미취업 청년(구직자) 중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2024년 9월 30일-10월 17일)한 결과이며 중복응답으로 각 항목의 비중 합이 100을 초과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 p.5

주 : 1) "괜찮은 일자리"에 적합한 지역 응답자 기준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 p.7

16) 대전광역시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산업 핵심 인적자원 육성 및 고교·대학·산업체 정주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024년 2월 지정되었다.

17) 한국고용정보원은 「2022-2032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하여 산업별·직업별 청사진을 제시하였다.(2024년)

4.5. 한편 고령층에 대해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층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훈련은 프로그램별로 기대효과를 평가하여 수요가 많고 고용 효과가 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¹⁸⁾ 또한 대전중장년지원센터와 같이 일자리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이 노년생활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취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구인 수요가 원활히 매칭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령층 대상 직업전환 및 재취업 프로그램 다양화

[표 4.3] 대전중장년지원센터¹⁾ 주요 사업 현황

구분	주요 사업 내용
상담	· 1:1 맞춤형 교육 상담 · 취·창업 상담
교육	· 중장년 세대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 일, 활동 지원
커뮤니티	· 사업을 통해 배출된 기수별 동아리 모임 구성 및 지원 육성 · 중장년 세대의 네트워크와 자원 공유
나눔일자리	·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 · 새로운 커리어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 중장년 세대의 긍정적 사회 인식과 공감대 형성 · 문화와 인프라 확산을 통한 지식네트워크 구축

주: 1) 대전광역시는 2015년 4월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10월 개소 (2021년 1월, 이모작지원센터에서 중장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자료: 대전중장년지원센터 홈페이지(2025년 1월 13일 기준)

4.6.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유치 등을 통해 신규 산업 발굴을 지속하고 공공부문 의존도를 완화함으로써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관련 관리자·전문가 일자리 확충과 고용의 질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대학과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 발굴 및 첨단산업기술 기업 육성에 집중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확충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4.7. 대전지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세에도 고용 상황 개선이 더딘 것은 경기순환적 요인과 함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더해 정부차원의 지원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8)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실업자 훈련은 돌봄서비스, 조리, 사무보조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안준기·오세미, 2024)

< 참고문헌 >

김진호·배의환(2021), “대전지역 서비스업 현황 및 성장 부진요인 분석”,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박창대·신우영·고한결(2024), “2024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백승연·최재혁(2023), “대전지역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송병호·이준호 외(2024), “경제전망(2024년 11월)”, 한국은행

송상윤·배기원(2022), “최근 취업자수 증가에 대한 평가”,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안준기·오세미, (2024), “최근 중고령층 직업훈련 현황 및 특성”, 고용이슈(2024 가을호), 한국고용정보원

정민수 외(2023), “지역경기상황지수의 개발 및 활용”,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

조광래·최재혁(2024), “충남지역 지방소멸의 주요 특징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한국경영자총협회(2024),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11)

한국고용정보원(2024), “2022~2032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한국노동연구원(2024), “2024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

한국은행(2024),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